

평일 장악한 SBS 드라마, 다음은 주말 안방

주말 흥행 불패 신화 김현주의 <애인 있어요> 8월 22일(토) 첫 방송



특별기획 <너를 사랑한 시간> 후속 <애인 있어요>가 8월 22일(토)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애인 있어요>는 <해피 투게더>, <로망스>, <반짝반짝 빛나는>, <스캔들-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을 집필한 배우미 작가와 <발리에서 생긴 일>,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등을 연출한 최문석 PD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기억을 잃은 여자가 죽도록 증오했던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이다.

주연인 김현주는 전혀 다른 성격과 환경의 쌍둥이 자매 도해강(독고온기)과 독고용기 역을 맡아 반전의 1인 2역 연기를 선보인다. 도해강의 남편 역을 맡은 지진희는 따뜻하고 풋풋한 소년 감성을 지닌 최진연을 특유의 지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매력으로 표현해낸다. 두 사람은 2004년 SBS에서 방송된 <파란만장 미스 김 10억 만들기> 이후 11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진희는 "김현주 씨와 다시 만나 연기하게 돼 기쁘다. 예감이 좋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도해강은 승소율 99%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

의 변호사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불사하는 냉혈한이다. 남편인 최진연은 약학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제약회사 외아들.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해서 집안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으나, 순수했던 아내 도해강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에 최진연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간다. 남편이 솔직하고 저돌적인 대학원생(박한별 분)에게 마음을 뺏긴 것을 확인하던 날, 도해강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다.

주말드라마 흥행 불패의 신화를 써온 김현주를 비롯해서, 지진희, 박한별, 이규환, 독고영재, 김청, 나영희, 최정우, 공형진 등 대세 배우들이 가세한 <애인 있어요>는 8월 22일(토)부터 안방극장을 사로잡는다.

월화 <미세스 캡>, 수목 <용팔이> 예상 대로 막강했다 쫓기는 <용팔이>, 뒤쫓는 <미세스 캡>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



8월 첫 주에 동반 출격 한 월화드라마 <미세스 캡>, 수목드라마 <용팔이>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월화드라마 <미세스 캡>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아마 최초의), 아줌마 형사가 주인공인 형사 액션물이다. 잘 될까 하는 우려를 '역시 김희애'는 한 방에 날려 보냈다. 직장에서는 정의로 피가 끓는 열혈형사이면서 가정적으로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딸에게

항상 죄스러운 영진 역을 김희애는 명품 맞춤옷을 입듯 훌륭히 연기했다. 트레이드 마크였던 물광 화장 대신 땀으로 범벅이 돼 하수구를 뛰어다니던 김희애 덕분에 <미세스 캡>은 1회 8.4%(이하 닐슨코리아/전국기준)로 시작해 3회 9.2%로 월화극 정상에 올랐고, 5회 10.8%로 두 자릿수 진입, 6회 12.1%로 시청률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미세스 캡>은 40~50대 여성들의 공감을 얻으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수목드라마 <용팔이>의 기세는 더욱 맹렬하다. 시청률 보증수표 주원과 대한민국 최고 미녀 김태희의 만남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용팔이>는 첫 회 뚜껑을 열자 장혁린 작가의 탄탄한 대본과 오진석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이 보태져 시청자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주원은 돈만 밝히는 속물 레지던트와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진정한 의술을 실천하는 레지던트의 두 얼굴을 완벽하게 오가며 드라마를 이끌어갔고,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자동차 추격 장면과 더미를 이용한 실감나는 수술 장면, 시시때때로 나오는 CG 등 비용을 아끼지 않은 제작 덕분에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용팔이>는 첫 회에 11.6%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를 단숨에 차지한 데 이어서, 여세를 몰아 2회 14.1%, 3회 14.5%, 4회 16.3%의 시청률로 올해 방송된 지상파 월화극, 수목극 중 최고시청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광고 완판은 물론이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드라마 검색어 최상위 등 화제성 면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온, 오프라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주부터 강제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 여진(김태희 분)과 태현(주원 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용팔이>의 인기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썩은 닭을 먹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다

편성본부 아나운서팀 김주희

지구 반대편의 그곳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었다. 세 번의 환승과 2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아프리카 말라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3위 안에 든다는 이곳의 첫인상은 보통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범한 모습이었다. 벽돌로 쌓은 담벼락 안에는 닭, 염소 같은 가축도 있었고,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아낙네도 있었다. 차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며 우르르 뛰어오는 콧물 찰흙, 땀국물 가득한, 하지만 너무나도 귀여운 큰 눈망울의 아이들의 모습은 소독차를 쫓아다니는 동네 아이



들처럼 웬지 어렸을 때 한 번쯤 본 것만 같은 친근한 풍경이었다. 세계 3대 빈국이라는 타이틀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을까? 곧 기아자동차와 기아대책본부의 후원으로 세워진 학교에 도착했다. 그리고 함께 온 기아자동차 봉사자 분들과 건물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등 비용이 드는 곳에 비용을 아껴주는 노동을 하고, 다음 날은 쓰레기를 버리는 큰 공터 옆에 형성된 작은 마을로 교육 봉사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8살 베르시와 12살 카자브이누 남매를 만나게 되었다.

허름한 옷을 걸친, 조금은 차가운 표정을 가진 아이들.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과 나는 알파벳 공부도 하고,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는 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특히 여자 아이인 동생 베르시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무언가 마음의 문이 굳건히 닫혀있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올 초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할머니마저 건강이

좋지 않아 동네에서도 제일 형편이 안 좋은 편이라고 했다. 남매의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서너 평수의 집 안에는 뭐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 방바닥, 벽, 물동이, 이불로 사용한다는 낡아빠진 천 조각. 이것이 세간살이의 전부였다. 구석구석 둘러보던 중, 한쪽 소쿠리에 널려져 있는 네댓마리의 닭을 보았다. 곰팡이가 하얗고 파랗게 피어오른, 수백마리의 파리가 달라붙은 닭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충격이자 공포였다. 그것은 쓰레기차에서 건져온 폐닭이라고 했다.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이 가족의 식사라는 것이었다. 쓰레기차가 오는 날 이 폐닭이라도 건져오면 이들에게는 장을 본 것과 같다. 옥수수 전분이 떨어지면 꺼내 먹는다는 든든한 식사.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상한 것을 알지만 배를 채우기 위해 폐닭을 먹는 두 아이와 할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마음이 아팠다. 옥수수 전분 한 포대 팔천 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이들은 썩은 닭을 먹는 것이다.

허름한 옷을 걸친, 조금은 차가운 표정을 가진 아이들.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과 나는 알파벳 공부도 하고,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는 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특히 여자 아이인 동생 베르시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무언가 마음의 문이 굳건히 닫혀있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올 초에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할머니마저 건강이

지구 반대편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안 먹어 상해서 버리는데, 그 반대편은 그 음식이 없어 상한 음식을 먹는단다. 참 웃기기도 슬픈 상황이다.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마주하게 된 현실은 어찌하면 미리 알았더라면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도 그 곳의 배고픈 하루는 계속 되고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함께'라는 말의 의미와 의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9월 5일 방송) 축하 에세이

협박과 회유에도 버틸 수 있게 해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름

제작본부 교양국 강범석 차장(〈한밤의 TV연예〉 연출)



문성근, 박원홍, 정진영, 박상원, 그리고 김상중까지. 돌아보니 많은 〈그것이〉 진행자와 5년여를 함께해왔다. 그동안 사라진 약혼자를 찾으러 다니고, 전두환의 비자금과 사이버 교주의 뒤를 캐러 다니며, 때론 미제 사건의 영킨 실타래를 풀어가며 30여 편을 제작했다.

“네 배는 칼 안 들어갈 줄 아냐?”는 협박과 회유의 손짓도 받아봤다. 엉거주춤했던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건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는 제보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빛 때문이었다. 경찰과 검찰, 그 어디에서도 풀어주지 못한 자신들의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하소연하는 곳이 〈그것이〉라고 했다. 선배들이 쌓아온 〈그것이〉의 위상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듯 버텨낸 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해야만 프로그램이 쌓아온 명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십여 년 전 처음 〈그것이〉에 배정되었다는 걸 확인한 뒤 가슴 터질 듯한 기쁨에 잠 못 들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다고 〈그것이〉 복귀 소식에 잠 못 이루다니.. ‘참 못났다’는 생각이 뒤늦게 든다. 내가 원했던 이유와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의 무게감. 때론 그 이름 아래 들어가고 싶었고, 때론 그 이름이 버거웠다. 그 무게는 〈그것이〉답게 〈그것이〉를 만들어 가야할 제작진의 숙명이자, 아직도 우리를 토요일 밤만 되면 TV 앞에 앉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다. 소심한 남편을 안쓰럽게 쳐다보던 아내도 고생이었다. JMS 사이버 교주 아이템을 끝낸 바로 다음날 결혼식을 치러야했던 아내는 결혼식 당일까지 불안해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내 소개를 할 수 있을 때가 좋았다. 가슴 뛰고 설레는 타이틀이었다. 그 타이틀로 내 욕심을 채운 적은 없지만, 그 하나만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 지금도 그 이름을 걸고 현장을 누비는 동료 PD들에게, 작가와 모든 제작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복귀. 그것은 한 통의 문자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연수 중이던 작년 말, 귀국을 앞두고 보내온 본부장님의 문자였다. “마무리 잘하고, 돌아와서는 의무방어전 좀 부탁해”

‘의무방어전’이라... 교양PD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밤새 뒤척인 다음 날 CP로부터 확인전화가 왔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귀국 즉시 〈그것이〉 투입.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다.

바로 새 프로그램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다. 하룻밤 만에 기획안이 완성됐다. 지금까지 그렇게 더디게 나오던 새 프로그램 기획안이 단 하루 만에 완성된 것이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수면부족, 만성피로, 위염과 식도염, 불안장애, 그리고 가끔씩은 신변의 위협까지... 이런 가혹한 ‘형벌의 시간’들로 되돌아가기 싫었다. 하지만 기획안은 보기 좋게 폐기처분되었고, 난 주위사람들의 위로의 눈빛을 받으며 세 번째로 〈그것이〉에 복귀했다.

‘쿡방 X 먹방’의 끝판왕 <백종원의 3대 천왕>이 온다



쿡방과 먹방을 결합한 것도 모자라, 스포츠중계 형식을 차용한 신개념의 요리중계쇼가 탄생했다. 8월 28일(금) 밤 11시 25분에 첫 방송되는 <백종원의 3대 천왕>은 백종원과 이휘재, 김준현이 각각 ‘해설위원’, ‘캐스터’, ‘먹선수’를 맡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숨어 있는 각 분야 Top3 맛집 고수들의 요리 대결을 맛깔나게 중계한다.

백종원은 ‘3대 천왕’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진짜 맛집을 찾아 나선다.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갈고 닦은 해박한 음식 상식과 예능감을 과시한다. 전국 맛집의 식재료나 조리 방법 등을 누구나 알기 쉬운 설명으로 풀어내는가 하면, 차원이 다른 백종원 표

먹방으로 시청자들의 미각을 자극한다.

이렇게 찾아낸 전국의 요리 명인들이 ‘맛집 3대 천왕’으로 스튜디오에 등장하며, 같은 요리에 대해 ‘3색의 맛’을 선보인다. 또 명인들의 손맛 비밀을 담아내는 한편, 그 맛을 내기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요리 명인들의 스토리를 소개하여 감동을 선사한다.

기술국 인프라관리팀 김택영 차장 정년 퇴임



2015년 8월, 경영지원본부 기술국 인프라관리팀 김택영 차장이 정년 퇴임한다. 김택영 차장은 1997년 경력직으로 송신소에 입사한 후 SBS의 방송망을 확장하고 송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힘써 왔다. 특히 디지털 TV 전환기에 송신시스템 교체 및 채널 전환 작업을 주도하여 송신 환경 개선과 난시청 해소에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UHD TV 실험방송 구축과 안정적 운용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맡은 업무에 열정을 바쳐왔다. 김택영 차장은 틈날 때마다 복지관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따뜻한 선배였다.

SBS 플러스

용인시와 ‘2015 슈퍼모델 선발대회’ 업무협약식 체결



SBS플러스는 올해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용인시와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8월 11일(화) 용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SBS플러스 윤희식 사장을 비롯해, 이현수 용인시 행정문화국장, SBS플러스 김계홍 본부장 등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에버랜드, 민속촌, 보정동 카페거리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용인시는 SBS와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공동주최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 용인시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홍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단순한 모델 선발의 의미를 넘어, 초대 슈퍼모델 이소라를 비롯해 한고은, 한예슬, 한지혜, 김수현, 이현이, 나나 등 수많은 스타와 각계 엔터테이너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스타 등용문이다.

8월 20일(목)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며, 추후 SBS와 SBS플러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SBS 골프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생중계 역대 최고 시청률



SBS골프가 8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생중계한 KLPGA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대회가 3라운드 평균 시청률 0.781%(이하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에 열린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세운 최고 시청률(0.693%) 기록을 또 다시 경신한 수치로, 2014년 SBS골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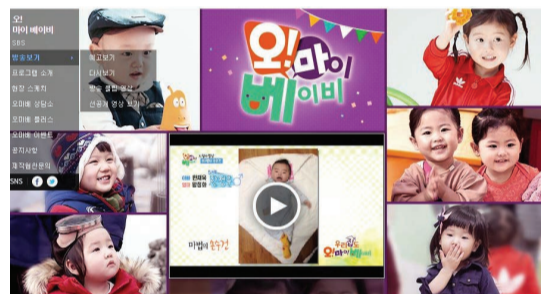
KLPGA를 단독으로 생중계한 이래 역대 최고시청률이다.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대회 파이널 라운드는 1.011%의 시청률을 보였으며, 연장 접전을 벌이던 막판에는 순간 시청률 2%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KLPGA투어는 대회마다 최고시청률을 경신하며 최고의 골프 콘텐츠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번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대회는 메이저 대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 시청자와 소통하다

<오! 마이 베이비>

<오마베 육아 상담소> 개설 등 육아 트렌드 선도



실시간으로 TV를 보지 않고, SNS를 통해서 방송에 대한 리뷰를 확인한 후에 방송을 접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디지털세상에서의 소통이 점차 중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작진의 참여도 즉,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분방 제작 외에도 디지털 전략을 세우고 전용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모바일 최적화를 고민하는 제작진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랑하고픈 우리 아이 영상이 TV에 나온다 <우리 집도 오마베>

우리집도 오!마이베이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외야 되는 ‘오!마이 베이비’ 너무 귀여워서 기록해서 황금해설 감동주머니!

우리 가족만 보기 너무 아깝다(?) 하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
어떻게?

- 1 후대폰이나 컴퓨터로 아이의 모습을 담는다.
- 2 <오! 마이 베이비> 홈페이지 시청자 응모 게시판에 올린다.
- 3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긴다.
- 4 본방을 사수한다! ※※※

※제작진 본방에는 ‘오!마이 베이비’ 방송 마지막에 영상이 공개되며 미디어 행사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 정말 좋겠네~” 어릴 때 즐겨 부르던 이 노래가 <오! 마이 베이비>에선 현실이 된다. SNS에 수없이 자랑하는 우리 아이의 영상, 매일 매일 남기는 우리 아이의 귀여운 영상을 <오! 마이 베이비> 홈페이지에 올리면 제작진이 베스트를 뽑아 방송 엔딩 화면에 출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집도 오마베>는 TV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메인에도 노출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홈피에서 육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오마베 육아 상담소>

오마베 육아 상담소

육아에 관련된 고민이나 질문을 올려주세요 아동 상담 전문가가 답변을 도와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창의적 지능 전문가

김계원

발달 전문가

백민수

학습 코칭 전문가

강민아

미술 치료 전문가

이정

4인 4색의 육아법을 보여주는 방송 뿐 아니라, 온라인에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전문 상담센터를 개설하였다. <오마베> 홈페이지에 개설된 <오마베 육아 상담소>는 육아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작진이 섭외한 아동 심리, 발달 전문가 4인이 시청자들이 올린 육아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인 ‘육아’라는 키워드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오! 마이 베이비>는 육아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청자들과 함께 쉼표 자라고 있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9년 동안 방청객 10만 명! 비결은 웃음과 소통 〈두시 탈출 컬투쇼〉



파워FM(수도권 107.7MHz)
월~일 오후 02:00~04:00

라디오인 듯, 라디오 아닌, 라디오 같은 방송. 매일 오후 두시 청취자들을 찾아가는 〈두시 탈출 컬투쇼〉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컬투쇼〉에는 늘 함께하는 방청객이 있습니다.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녀간 방청객만 해도 벌써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매일같이 라디오 너머의 사람들을 직접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 그리고 프로그램을 듣는 청취자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10주년을 향해가고 있는 지금, 〈두시 탈출 컬투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점에도 불구하고 〈두시 탈출 컬투쇼〉가 라디오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바로 '웃음'과 '소통'입니다. 〈두시 탈출 컬투쇼〉가 드리는 웃음의 근본은 바로 청취자들이 보내주시는 다양한 사연들에 있습니다. 청취자들의 재미있는 일상이 지금의 〈컬투쇼〉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소통을 통한 웃음을 가장 극대화한 프로그램이 바로 〈두시 탈출 컬투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컬투쇼〉가 10년을 지나 더욱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웃음'과 '소통'이라는 본질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을 일이 많이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 〈두시 탈출 컬투쇼〉가 청취자들에게 좀 더 유쾌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작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사우 여러분의 사내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사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사내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컬투쇼〉 사내 방청 신청은 사내 메일 수신인 란에 '컬투쇼'를 입력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내용에 소속 부서와 방청 인원 수, 방청 인원 대표 한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써주셔야 합니다. 사내 신청은 반드시 4인 이하로 부탁드리며, 방청을 원하는 날짜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하셔야 원활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주변 지인 분들께 저희 〈두시 탈출 컬투쇼〉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시 탈출 컬투쇼〉 조연출 이세훈(라디오센터 라디오2CP소속)

동호회 소개 - SBS 합창단

완벽한 화음보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목요일 낮 12시, 목동사옥의 지하 4층. 지하 4층에서도 가장 안쪽의 공간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웃음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내 엘리베이터 대부분이 지하 4층으로 운행하지도 않고, 10년 이상 SBS에 근무하면서도 가보지 않았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SBS합창단의 즐거운 연습공간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SBS합창단이 추구하는 것이 완벽한 화음은 아닙니다.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음악이라는 휴식을 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음이 다소 틀리고 박자를 가끔 놓치더라도 크게 민망하지 않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물론 완벽한 3화음이 맞았을 때의 짜릿한 감동 또한 없진 않습니다. 길지 않은 연습시간이 끝날 때면 항상 아쉬워서 "한 번 더해보자"하다가 밥 먹는 시간이 짧아질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레퍼토리에서도 편안하고 친근함을 추구하여 2015년에 연습한 곡들을 보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영화 Once의 삽입곡 'Falling Slowly', 'Oh Denny boy', '꿈꾸는 백마강', '섬집 아기' 등 다양한 장르의 쉽게 부를 수 있는 곡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입하시는 회원들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금방 적응하십니다.

2014년 1월에 창단한 SBS 합창단이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합창단의 자랑인 권요셉 선생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국립음악원에 유학한 실력파 성악가이자 수원 더웰병원 발성치료사로 근무하시는 권 선생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와 합창단을 열성적으로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고래도 춤추게 할 듯한 칭찬을 발사하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특별지도까지 해주시는 합창단의 심장과도 같은 분입니다. 1년 정도 함께 연습한 결과에 대해 "단원들이 호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건강한 소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점차 자신의 발성을 찾아가고 있어 소리의 퀄리티가 몰라보게 좋아져서 보람을 느낍니다"라며 SBS 합창단의 발전에 흠뻑 감을 표시했습니다.

올 하반기 합창단의 목표는 작은 발표회를 갖는 것입니다. 아직은 레퍼토리도 부족하고, 합창단이라는 이름에 다소 못 미치는 단원숫자이지만, 발표회라는 목표에 더욱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여정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노래를 혹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살짝 물어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합창의 장점입니다. 단, 노래를 잘 하든 못하든 노래하는 즐거움과 멋들어진 화음의 감동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 SBS합창단 총무 이원구(SBS미디어홀딩스 브랜드전략팀장)

공연 · 전시

〈맨 오브 라만차〉

조승우가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일시: 7월 30일(목)~11월 1일(일)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맨 오브 라만차〉는 스페인의 셰익스피어라고 일컬어지는 세르반테스의 풍자소설 '돈키호테'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1965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이듬해 토니상 5개 부문을 석권하는 등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다. 한국에서는 2005년 국립극장에서 〈돈키호테〉라는 제목으로 첫 선을 보였으며, 2007년부터 원제인 〈맨 오브 라만차〉로 공연되었다.

올해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한국 초연 1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브로드웨이 50주년이자 소설 '돈키호테' 완간 400주년(1605년 1부 출판, 1615년 2부 출판)이며, 소설이 한국에 소개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1915년 육당 최남선에 의해 처음으로 번역돼 잡지 '청춘(靑春)'에 '돈키호테전기(頓基浩傳奇)'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이 역사적인 해에 내로라하는 톱 뮤지컬 배우들로 잔뜩 힘을 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연출 데이비드 스완)가 7월 30일부터 서울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시작했다. 열정적인 작가 세르반테스이자 이상을 좇는 노인 돈키호테 역에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배우인 류정환과 조승우가 더블 캐스팅되었고, 거리의 여인이자 돈키호테의 레이디 알돈자 역에 뮤지컬과 연극을 넘나드는 연기파 배우 전미도와 최근 〈지킬 앤 하이드〉를 통해 뮤지컬배우로 인정받은 린아가, 산초 역에 정상훈과 김호영이 캐스팅되었다.

초연부터 시작해 다섯 번째로 돈키호테 역할을 맡아 역대 돈키호테 중 최다 시즌 출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류정환은 올해 한층 더 깊어진 연기와 멋진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2008년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맨 오브 라만차〉로 남우주연상까지 거머쥐었고,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로 〈맨 오브 라만차〉를 꼽는 조승우는 뛰어난 연기로 관객을 열광시킨다.

브로드웨이 초연을 한 지 반세기 동안 'Impossible Dream (이룰 수 없는 꿈)'을 비롯한 주옥같은 넘버들로 사랑을 받아온 〈맨 오브 라만차〉는 우리에게 여전히 '꿈'에 대한 힘찬 메시지를 준다.

경조사

· 애도합니다

라디오센터 정태익 라디오2CP 모친상(8월 13일)

경영지원본부 기술국 김학정 편집기술팀장 빙부상(8월 18일)